

히시가타 연못

우사 신궁의 경내 중앙에는 히시가타 연못이라는 이름의 아름다운 연못이 있습니다. 연못 위에 떠 있는 작은 섬들에는 여러 신사와 노(가면을 쓰고 아름다운 옷차림을 한 배우가 가무를 선보이는 극)의 무대가 마련되어 있으며, 각 섬들은 서로 다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통 다리는 닫혀 있지만 연못 주변을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등나무와 연꽃, 창포, 단풍 등 계절마다 변하는 아름다운 풍경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물새와 거북이,形形色색의 잉어가 서식하고 있는 큰 연못에서는 잉어에게 먹이를 줄 수 있는 작은 먹이 봉지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히시가타 연못의 남동쪽 독에는 영험하다고 알려진 고레이스이(御靈水)란 이름의 샘이 있습니다. 신사의 전설에 따르면 571년 이 장소에서 오가노 히기라는 남자 앞에 하치만 신이 나타나 자신이 나라의 수호자임을 선언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사 신궁의 역사가 시작된 출발점으로 여겨집니다. 고레이스이 샘 주변에는 샘을 둘러싸고 주홍색 울타리가 쳐져 있으며, 도리이에 의해 경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맑은 물이 솟아난다는 이 샘은 대나무 텃개로 덮힌 3개의 돌우물에 물을 공급합니다. 신자들 일부는 이 물을 종교적인 공물로 바치기 위해 집으로 가져가기도 하지만, 마시기에는 적합하지 않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앙의 섬에 마련된 노 무대는 매년 10월에 열리는 노 공연이나 그 외 다른 공연에 사용됩니다. 이 무대 근처에는 목수 등 장인을 수호하는 신을 모신 모쿠쇼소 신사가 있습니다. 다른 섬에는 물의 신을 모신 미쿠마리 신사가 있습니다. 연못의 서안에 위치한 에마당에는 우사 신궁의 전설이나 역사를 그린 에마(신사나 사원에 봉납하는 그림이 그려진 목판)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히시가타 연못은 우사 신궁 경내에서 이루어진 쇼와의 대재건(1932~1941) 때 복원되고 확장되어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